

술꾼은 아침에 호박산을 먹어라!

BBK Plus, 숙취해소제 <빨리빨리> 출시 ... 러시아 교포3세 개발

러시아 교포 3세와 러시아 생물물리이론연구소 연구팀이 공동으로 개발한 숙취 예방물질이 국내에서 상품화됐다.

한국 B.B.K Plus는 지금까지 소개된 일반 호박산보다 순도가 높아 알코올 섭취에 따른 숙취와 간장장애 개선효과가 크게 향상된 숙취해소제 <빨리 빨리>를 국내 약국과 할인매장, 편의점 등을 통해 판매한다고 12월 30일 발표했다.

<빨리빨리> 생산에 사용된 호박산은 세계 처음으로 인공혈액을 개발한 러시아 과학자 마예프스키 박사와 소련정부병원 컨설턴트로 활약한 오한도 박사가 공동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발표 당시 화제를 모았었다.

한국 B.B.K Plus 관계자는 “동물실험 결과 주성분인 호박산을 먹인 쥐는 알코올 섭취에 따른 숙취와 간장장애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호박산이 체내에서 숙취와 간장장애를 일으키는 Acetandehyde를 억제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문의: 02-3446-0080)

<화학저널 2004/12/31>